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돛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백두의 현출령정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찬추민대에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선군절을 맞이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기치높이 우리 조국과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주제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을 누리며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분별의 혁명실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애국충정과 건철한 반제자주의 신념, 특출한 정치실력과 불변불휴의 헌신으로 이룩하신 고귀한 선군혁명명도업적이 있어 우리 공화국은 미래와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을 겁을 무디고 짓부시고 빛나는

승리와 세기적변혁을 청사에 아로새기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 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돛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장관 50여 명상 영웅적인 강령군한생을 수놓으시며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일떠세우시고 주제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불세출의 선군대령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도의 정으로 새차례 꽃이 피어났고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정면엔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철쭉꽃 핀 선군의 산악 절벽을 형성한 주석단배경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과 《경축 55돛》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무역,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꾼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국철동지, 김원홍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명태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명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역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당의 선군혁명위업

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풍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인민무역부장인 룡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대회에서 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명도는 혁명의 승리의 적진과 더불어 영원히 호를것이다》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무적의 군력과 불패의 일심단결, 부강조국건설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되새기며 성, 중앙기관 일꾼들, 당의 선군혁명위업

를 이어가고나가는 우리 조국의 미래는 휘황찬란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와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과라 백두의 혁명정신, 1950년대의 조국수로 정신으로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솟아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노래 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나이제리아 인사가 선물을 드리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선군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국회 상원 의원이 선물을 드리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나이제리아국회 상원 의원 아부물라호 아다무가 18일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돛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무관단 단장인 장정 중화

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이 24일 인민무역위원회 조신인민군 특군대장 박영식 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된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된 소식을 21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전하였다. 꾸바의 브랜바 라파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지도하셨다. 회의에서는 적들의 전쟁도 발족을 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대응계획이 토의되었으며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작전을 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었다. 수리아신문 《티슈린》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변합대들이 불의 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전할것을 명령하시었다. 이 명령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서 하달되었다. 회의에서는 적들의 전쟁도 발족을 전압하기 위한 정치군사적대응계획이 토의되었으며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공격작전계획이 검토, 비준되었다. 《방글라데슈 투데이》, 《뉴스 투데이》, 《데일리 스타》, 《인디 스트리》, 《파이낸셜 엑스프레스》, 《블리즈》를 비롯한 방글라데슈의 주요신문들, 인디아인 러네트신문 《보이스 오브 밀리 언즈》, 레바논신문 《알 마나 르》, 만마의 신문 《에본 데이 데일리》, 인터넷홈페이지 《더 투 루인》,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 투드》와 로드니아국제관계 및 경제협조연구소, 브라질주 세사상연구소, 베루조선전선 문화협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변합대들이 전선상태로 이전할것에 대하여 명령을 하달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편 꾸바의 브랜바 라파나통신, 방글라데슈신문들인 《방글라데슈 투데이》, 《데일리 스타》, 《블리즈》,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 투드》와 칠레공산당(프 로메라리아행동), 우르니아국제 관계 및 경제협조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들은 21일과 22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긴급 보도를 전하였다. 베마는, 만마, 우루과이, 브라질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 활동사건들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 선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찬 전군을 다그치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5돛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선군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대령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본사기자

## 영원히 빛을 뿌릴 선군혁명사상과 업적

선군절을 맞으며 국제사회는 55년전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오신 회색의 선군명장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 보고 있다. 주체선군정치연구 배루-조선선 선현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위 서물류경수 제 105공소사단에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을 기념성령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제 사상, 선군사상을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계기로 되었다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당성당 전국지도리사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본사기자

업적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만년대보로, 세계자주화위업의 필승의 보검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인러네트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이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자주강국으로, 동북아시아의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역한 보루로 되고있는것은 김정은각하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의 령도를 받들고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로 새우며 창조와 번혁의 대변영기를 안아왔다. 세계는 이에 대하여 말그대로 기적이요, 김정은각하의 선군명도의 위대한 승리와 격찬하였다. 회색의 선군명장을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조선중앙통신]







